

의대생 복귀 선언 속 전공의 논의도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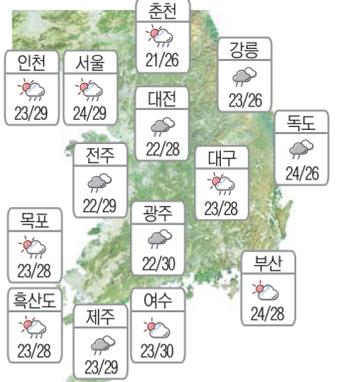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9 해질 19:48 🌙달돋이 22:09 달짐 08:36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비	22/30	장성	구름비	21/29
목포	흐려져비	23/28	보성	흐려져비	20/29
여수	구름조금	23/30	함평	구름비	21/29
나주	구름비	21/29	순천	흐려져비	22/31
완도	흐려져비	22/31	영광	흐려져비	22/28
구례	흐려져비	22/31	진도	흐려져비	22/29
강진	구름비	21/30	흑산도	흐려져비	23/28
해남	흐려져비	22/29	고흥	흐려져비	22/32
광양	구름조금	23/31	담양	구름비	21/29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5	0.5-1.5
남부	면바다(북) 1.0-2.0	1.0-2.5
	면바다(남) 1.0-2.0	1.0-2.5
남해	앞바다 0.5-1.5	0.5-1.5
서부	면바다(동) 1.0-2.0	1.0-2.0
	면바다(서) 1.5-2.5	1.5-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4:38	09:48	11:14	05:16	11:52	06:27
	16:36	21:49	23:47	17:10	---	18:08

●생활정보지수

☝네들이 30 **🚗세차 20**

우산 챙기세요 세차는 다음으로

🧤빨래 20 **🏊운동 30**

세탁이 쉬는날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15일(화)	16일(수)	17일(목)
☁(22/29)	☁(23/29)	☁(24/31)
흐려져비	흐림	구름비
18일(금)	19일(토)	20일(일)
☁(25/31)	☁(25/31)	☁(25/32)
구름비	구름비	구름조금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출구 보이는 의정갈등

‘교육 질’ 담보 대책 마련 관건 전공의단체 오늘 국회 간담회 9월 복귀 선결 조건 논의할 듯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도 출구가 보이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복귀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대협 집행부의 대안 없는 강경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와 불만이 쌓여간 점도 입장 선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월요일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선우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이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간단하진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

자는 8천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이번 복귀 선언은 정부와 대학들에 공을 넘기고 “복귀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의대생과 함께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쥘 또 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준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임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 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다.

/연합뉴스

광주 고교 진학 시 ‘中1 성적’도 반영

市교육청, 신입생 전형 요강 확정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변경 영향 광주예술고 내신 우수 전형 폐지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지난 11일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광주시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평준화 일반고 44개교(과학중점고 4교 포함), 자율형 공립고 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특성화고 12개교, 비평준화 일반고 2개교 등 67개교의 입학전형을 담고 있다.

2026학년도에는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경되면서 평준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과학중점고 신입생 전형에서 중학교 1학년 성적이 반영되는 점을 제외하면 전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선발·배정한다.

반면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선발하는 일부 전기고등학교는 전형이 변경된다.

광주예술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을 기존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에서 교과 성적 등에 의한 절대평가 산출 방식으로 바꿨다. 더불어 국악과, 한국화과, 미술과는 중학교 내신 성적 위주의 특별전형 폐지를 폐지했다.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남녀공학

으로 전환 예정이다. 또 철도전기과를 신설한다.

금과공업고등학교는 입학 단계부터 학과를 구분하는 ‘학과별 신입생 모집’을 도입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및 광주형마이스터고 10월20일 ▲광주예술고 10월21일 ▲광주체육고 11월3일 ▲특성화고 11월24일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고를 포함한 평준화 일반고 12월16일부터 시작된다.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8일이며, 배정 발표는 1월22일에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원서 접수에 앞서 오는 9월 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이 기자

도교육청 ‘학교자율시간’ 안착 총력

전남도교육청이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자율시간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세

롭게 도입된 제도로, 국가 교육과정 중 일정 시수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 철학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라는 점

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자율시간 적용 과목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원들의 설계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에 나서는 등 단위학교의 실질적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12일 여수에서 도내 중학

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57명을 대상으로 ‘2025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지역에서 학교자율시간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강진군** 광고문의 : 062)650-2099